



[100세 시대 기획]
日 신도미요양원
이사장 인터뷰
로봇의료 '무궁무진'
L2



Life

[공기업]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대안 마련해야
L4



국내 첫 콘서트 공연장 '서울아레나' 2024년 개장 'BTS'·'빅뱅' 케이팝 콘서트, 전문 공연장에서 본다

케이팝 전문 공연장 창동에 들어서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부터 운영 원형식으로 관객과 무대 사이 줄여

케이팝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
강북 균형발전·서울 경제 발전 기대

이제 방탄소년단, 빅뱅 등 한류 붐을 일으킨 국내 아티스트들이 체육 시설이 아닌 콘서트 전문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서울에 국내 최초의 케이팝(K-POP) 전문 대형 공연장인 '서울아레나'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건립된다. 공연장은 총 1만8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부터 공연장 운영을 시작한다.



오는 2024년 문을 여는 콘서트 전문 대형 공연장 '서울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아레나는 관객이 중앙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식 실내 공연장이다.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줄여 시야를 확보하고 다양한 무대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공연 인프라다.

서울시는 창동역 일대를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로 만들 계획이다. 아레나 주변에는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 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의 행사가 열리는 2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11개관), K-POP 특별 전시관과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편의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건립으로 인해 창동역 일대에는 총 599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긴다. 총 부가가치 2381억원의 파급효과와 함께 7765명의 고용·취업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레나 건설에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이후 소유권은 시에 귀속된다.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이다.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선순 본부장은 "시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은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며 "또 공간 외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2015년 11월 민간 제안 접수 이후 3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처음 제안된 사업안의 비용 편익 분석(B/C=0.44)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전의 사업 타당성 평가에는 대관료만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수정된 제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공연 수입이 포함됐다"며 "또 기존에는 유스호스텔과 소공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를 중형공연장으로 바꾸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서울아레나 건립으로 강북지역의 문화생활이 더 윤택해지길 바란다"며 "복합문화시설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의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반짝 한파' 찾아온 출근길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한파'가 찾아온 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갑 필요 없어요” 서울 자동결제 주차장 운영

시내 7곳에 지갑 없는 주차장 시범운영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도 간편하게
#. 직장인 김알씨 씨는 서울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퇴근한다. 출차할 때 별도의 확인 없이 자동으로 환승 할인이 된다. 제로페이로 추가 할인도 받는다. 김 씨는 사전 등록 결제 시스템에 결제 수단을 등록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지갑 없는 주차장'을 시내 7곳에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기만 하면 미리 등록해둔 결제 정보로 주차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세상이 왔다. 시는 상반기 중 자동결제시스템과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축, 9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7곳(노외 5곳, 노상 2곳)에서 지갑 없는 주차장을 시범 운영한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입·출차 지점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출차 시 사전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도로 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의 차량인식센서를 통해 입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 출차 시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을 구현한다. 시는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10% 요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동이 가정, 국가유공자 등 법정 할인 여부를 자동 인식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즉시감면서비

스를 시스템에 연동한다. 공영주차장과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도 간편해진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사전 등록 페이지에 입력한 교통카드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해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아울러 시는 통합주차관리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주차장 수요·공급 관리, 맞춤형 주차 정책 제공 등에 활용된다. /김현정 기자

'건강 출산 지원사업' 10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난임 예방 등 지원 확대
서울시는 '건강 출산 지원사업'을 10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 출산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시는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지난해 건강 출산 지원 프로그램에는 남성 1082명, 여성 1823명 등 총 290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검사 등) ▲엽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았다. /김현정 기자

여성에게는 임신 준비 때부터 엽산제를 복용하도록 해 선천성기형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지원했다. 남성에게는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과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로 난임 예방을 유도, 건강한 임신을 도왔다. 시가 지난해 11~12월 참가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1%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가임 남녀에게 권장한다'는 답변도 93.5%에 달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올해 10개 자치구로 건강 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건강한 임신'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12일부터 웹드라마와 웹툰을 활용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검진, 엽산제 복용 등 임신 전 출산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내항 미래비전 발표

해양친수도시 조성할 것
인천시는 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민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내항 물동량 변화, 인구감소 등의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내

항일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4개 기관 공동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향운노조, 물류협회, 전문가, 언론기관, 시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마스터플랜 수립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

여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에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을 목표로 5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민선7기 원도심 정책을 담은 내항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수공간을 연결한 활기찬 해양친수도시 조성 ▲개항장 역사자원을 활용한 원도심재생 ▲내항과 개항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